

제974호

(1994.8.2 등록번호 다-3802호)

2013년 11월 10일(주일)

온누리교회는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생명까지도 던진故 하용조 목사가 1985년 10월 6일 창립한 사도행전적 '바로 그 교회'입니다.

온누리신문

- 성경 중심의 교회
- 복음 중심의 교회
- 선교 중심의 교회
- 긍휼을 베푸는 교회
- 예수 그리스도의 문화를 심는 교회

The Onnuri Weekly

http://news.onnuri.or.kr

• 발행인: 이재훈 • 편집국장: 장선철 • 부장: 김남원 • 기자: 정지은, 오은지, 조유진, 조은실 / 140-240 서울시 용산구 서빙고동 271-106 / 신문사 3215-3199 / 570-7611 서빙고 793-9686 양재 573-9686

“하나님의 꿈 전하고 오겠습니다”

러브소나타 군마 11월 13~14일
60개 일본 교회 협력, 3200장 초청장 발부

지난 7일(목), 서빙고 두란노홀에 간절한 기도소리가 가득 찼다. 군마 러브소나타 참석자 모임이었다.

일본 땅이 영적으로, 상황적으로 어려운 이 시점에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참석자들의 고백이 군마 러브소나타에 대한 기대를 더욱 고조시켰다.

박종길 목사(양재 온누리교회)는 예수님의 섬김이 우리를 통해 일본인들에게 나뉘지길 바란다고 말씀을 전했다. 순종하는 마음으로 참석하게 되었다는 이동현 성도(성동광진 공동체)는 하나님 자녀로서 이웃나라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참석하게 됐다고 말했다.

오는 13일~14일, 일본 군마 베이시아 문화홀에서 19년째 러브소나타가 열린다.

13일(수)에는 교회부흥세미나와 가스펠나이트, 14일(목)에는 CEO포럼과 문화전도집회인 '러브소나타'가 이어진다. 문화전도집회에는 이재훈 담임목사가 주강사로 나서며, 김영미(소프라노), 송솔나무(플루티스트), 심수

봉(가수), 온누리장로합창단 등이 게스트로 출연한다.

러브소나타에는 봉사자 A팀과 B팀, CEO포럼, CGNTV아웃리치팀, 온누리장로합창단, 복지재단 등이 참가한다. 각 참가자팀은 러브소나타 행사 일정 외에도 현지교회를 방문해 함께 예배드리고 위로와 격려의 시간을 갖는다. A팀은 12일(화) 이세사키 그리스도 교회, B팀은 15일(금) 안디옥 가스펠 교회, CEO포럼팀은 14일(목) 오지마 그리스도 교회에 방문한다. CGNTV팀은 운영위원회 아웃리치로 진행되어 현지교회에 방문해 CGNTV 안테나를 설치한다.

군마 현지에서도 한국팀을 반길 준비의 막바지를 달리고 있다. 60개의 교회가 협력했고, 3200장의 초청장이 발부되었다. 러브소나타가 열리는 베이시아 문화홀에는 3천 여명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이 준비되었다.

/ 조은실 기자 ces@onnuri.org



'러브소나타 군마' 참가자들이 눈물을 뿌리며 부르짖고 있다.

‘일대일 데이’와 함께 행복한 주일!

국내 10개 캠퍼스, 다양한 행사 마련

일대일 데이를 맞아 오늘(10일) 온누리 각 캠퍼스에서는 다양한 행사가 진행된다.

먼저 >서빙고는 몸과 마음과 영의 양식을 채우자는 의미로 성구암송, 바자회, 도서구입(일대일관련 서적)등의 행사를 준비했다. >양재에서는 올 한 해 동안 일대일 양육을 1회 이상한 양육자들을 초대해 감사예배를 드리며 머그컵과 떡을 제공한다. 또한 대외사역자를 초빙해 간담회도 개최한다. >부천에서는 일대일 양육간증, 일대일 UCC영상, 일대일 사역소개 성구암송 대회 등이 진행된다.

>수원은 교회 로비에 포토존을 설치하고 일대일 동반자와 양육자의 말

씀 암송 및 기념촬영(머그컵 제공)을 하며, 양육자와 동반자가 삼대 이상 같이 참석하는 성도에게 카페 이용권 및 선물을 증정한다.

>대전은 일대일 대외사역자로 신청하는 성도에게 사이닝 유료교환권을 드린다. >인천에서는 일대일 최다 양육자에 대한 시상식이 있을 예정이다.

그 외에 남양주, 평택에서는 머그컵 증정 행사가 진행되며, 강동은 12월에 일대일의 날을 정해 포토존 설치 및 동반자 신청자에게 카페이용권과 머그컵을 증정할 예정이다.

▶8-9면 <일대일의 날 특집>

/ 조유진 기자 ujin@onnuri.org

11월 비전헌금 한동대학교

오늘(10일) 봉헌하는 11월 비전헌금은 한동대학교를 위해 사용된다.

온누리교회와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한동대학교는 하나님의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의 요람으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

신관 1층 화장실 탈바꿈

서빙고 신관 1층 화장실이 노약자, 임산부, 장애인을 위한 화장실로 탈바꿈했다. 일반 성도들은 신관 지하 1층 화장실을 이용하면 된다.

신교재단은 노약자, 장애인 임산부 성도들의 편의를 위해 지하 화장실 등의 리모델링 공사를 계속 실시할 예정이다.

블랙가스펠 콘서트

전도사역본부, 11월 19시 30분 서빙고

전도사역본부가 오는 11월 11일(월) 저녁 7시30분 서빙고 본당에서 크리스천 문화의 중요성을 알리는 '블랙 가스펠 콘서트'를 연다.

이번 콘서트에는 미디어 군대(Media Army) 찬양팀, 양동근(블랙 가스펠), 헤리티지, VOS 박지현, 잭스키스 강성훈, 길그룹 타픽, 레드애플 이민용, 한스밴드 김한샘 등이 출연할 예정이다.



칩 잉그램 목사 설교

서빙고 3부, 영어예배

오늘(10일) 서빙고 3부예배와 영어예배에서 칩 잉그램 목사가 말씀을 전한다. 칩 잉그램 목사는 미국 새너제이 벤

처크리스천교회(Venture Christian Church) 담임목사이자 국제적 제자사역단체인 '리빙온더에지'(Living on the Edge) 대표이다.

/ 김남원 부장



주일강단



이재훈 목사

다윗과 므비보셋

우리는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왕의 식탁에 참여하는 은총을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삼하 9:1~13

성공한 사람들의 두 가지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는 성공해서 얻은 축복을 지키려고 안간힘을 쓰는 모습과 또 다른 하나는 성공을 통해 얻은 축복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려는 모습입니다.

한동대학교의 캐치프레이즈중의 하나가 ‘공부해서 남 주자’입니다. 어떻게 하면 자신이 성공해서 얻은 축복을 다른 사람들과 나눌 수 있을지를 고민하는 것입니다.

성공으로 인해 얻은 축복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사람들도 두 종류로 구분 됩니다. 하나는 자신에게도 무엇인가 돌아올 것을 기대하면서 나누는 사람과 자신에게 아무것도 돌아올 것이 없는데도 나누는 사람입니다. 앞의 것도 분명 선한 나눔이지만 일종의 투자로 볼 수 있습니다. 후자는 아무것도 되돌아오지 않아도 나누는 것입니다. 이것을 은총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은총을 나눠주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은총을 나눠주는 인성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반드시 축복하실 것입니다.

살아남은 사울의 자손들이 있느냐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은총을 베풀니다. 다윗이 사울의 손자 므비보셋에게 은총을 베푸는 이 장면은 구약성경에 나타난 가장 아름다운 장면이라고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사울의 집안에 살아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려고 한다”(3절).

다윗은 주변의 모든 국가들을 정복하고 하나님이 주신 평안과 안전, 번영의 축복을 기리기 위해 가장 먼저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왔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집을 짓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 마음을 바꾸셔서 그가 하나님의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윗의 집을 견고하게 지어주시겠다는 축복의 약속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은총을 베풀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사울 집안에서 살아남은 사람이 다윗을 찾아온 것이 아니라 다윗이 먼저 사울의 자손들을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 은총을 베푸는 사람은 언제나 먼저 찾아옵니다. 사실 찾아오는 사람도 돕는 것이 벅할 때가 많은데 다윗은 은총을 베풀기 위해 먼저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울의 집안’이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다윗은 요나단의 집안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다윗과 요나단이 맺었던 아름다운 우정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요나단의 자손이라면 다윗에게 무엇인가 받을 수 있습니다. 또 다윗이 요나단의 자손들을 지켜줘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윗과 요나단이 우정을 맺을 때 요나단이 자신의 자손들을 부탁한다고 했고, 다윗이 지켜주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베푸는 다윗

다윗은 자신의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몰랐습니다. 자신이 왕이 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것이라고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요나단과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요나단의 자손만을 찾지 않았습니다. 사울의 자손을 찾았습니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의 왕이 되었을 때 북쪽의 열한 지파의 왕이었던 이스보셋도 사울의 아들이었습니다. 그 외에도 사울의 자손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요나단과 직접 상관없는 자손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지금 찾고 있는 사람은 살아남은 사울의 모든 자손들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은총은 대상을 축소시키지 않습니다. 언제나 대상을 확장시킵니다. 다윗은 사울의 집안 전체에게 은총을 베풀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다윗은 ‘내가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라고 말했습니다. 자신이 사울의 자손들에게 베푸는 은총이 아니라라는 의미입니다.

지난주 사무엘하 7장에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주어를 바꾸지 말라고 경고 하셨습니다. ‘내가 나를 위해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통해서 집을 짓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받아들이고 9장에서 자신이 은총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총을 베푸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은총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헤세드’입니다. 헤세드는 다양한 의미로 번역되기 때문에 한 단어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헤세드는 은혜, 자비, 인애, 사랑 등의 의미를 가진 단어로 번역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은총으로 해석됩니다.

영어에서는 사랑이라고 표현하기에 부족해서 ‘Loving kindness’라고 번역합니다. 자비와 사랑을 합친 단어입니다. 어떤 번역에서는 ‘실패하지 않는 사랑’, ‘무너지지 않는 견고한 사랑’이라고 번역하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 ‘헤세드’라는 단어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대상의 상태와 상관없이 주는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대상이 감사하든 감사하지 않든지, 나에게 무엇인가를 돌려주든지 돌려주지 않든지, 의를 지키든지 지키지 않든지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변함없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배반해도 포기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아도 변함없는 사랑을 부어주십니다. 결코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헤세드’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 ‘헤세드’를 베풀기를 원했습니다. 다윗이 자신에게 돌아올 것을 기대했다면 사울의 집안을 찾지 않았을 것입니다. 다윗에게 유익이 되지 않을 사람들이 사울의 자손들이기 때문입니다.

고대 왕조시대에는 이전 왕족들을 모두 멸했습니다. 귀환을 보내거나 발목을 완전히 잡아 놓았습니다. 반역의 소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사울의 자손들이 다윗에게 되돌려 줄 수 있는 것이라는 반역밖에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총을 사울의 자손들에게 베풀기를 원했습니다.

사울의 자손 므비보셋

다윗이 은총을 베푸는 모습이 감동적입니다. 다윗이 사울의 집안에 살아남은 자손들을 찾으라고 명령하자 신하들이 사울 집안을 섬겼던 시바라는 종을 시켜 사울의 자손을 찾았습니다. 그가 바로 ‘므비보셋’입니다.

므비보셋이 다섯 살 때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 중에 그의 할아버지인 사울과 그의 아버

지 요나단이 함께 죽었습니다. 그리고 블레셋 군인들은 왕궁을 완전히 유린했습니다. 그때 도망가다가 넘어져 므비보셋은 두 다리를 쓰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므비보셋은 하루아침에 부모를 잃고 고아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두 다리를 쓰지 못하는 장애인 되었습니다. 그것보다 더 비참한 것은 평생 숨어 살아야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사울의 후손이라는 것이 밝혀지면 어떤 위협에 처하게 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므비보셋이 살던 곳은 ‘로드발’입니다. ‘로’는 히브리어로 ‘아니다’라는 것을 뜻하고 ‘드발’은 목초지를 의미합니다. 목초지가 아니라는 것을 보니까 그는 황무지에서 살고 있습니다.

므비보셋의 인생이 얼마나 불행한지. 사실 그가 잘못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것도 없었습니다. 그는 역사의 희생자요, 운명의 희생자입니다.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풍성한 은총

왕궁에서 태어나 축복가운데 있다가 하루아침에 고아가 되고, 장애를 얻고 숨어사는 므비보셋에게 어느 날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다윗 왕이 자신을 찾고 있다고 하니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아마 몸이 얼어붙었을 것입니다. 드디어 운명의 날이 왔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사울의 자손인 그를 살려 둘리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드디어 므비보셋이 다윗 왕 앞에 섰습니다. 운명의 만남이 이뤄진 것입니다. 다윗 왕이 므비보셋을 바라보자 그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마치 사형선고를 받은 사람처럼 말입니다.

“다윗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네 아버지 요나단을 생각해 네게 은총을 베풀고 네 할아버지 사울에게 속했던 모든 땅을 네게 돌려줄 것이다. 그리고 너는 항상 내 식탁에서 먹게 될 것이다.’”(7절).

다윗이 므비보셋에게 베풀 하나님의 은총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사울의 모든 재산을 돌려주었습니다. 사실 정경적으로 므비보셋에게 생활비만 주어도 됩니다. 그렇게만 해도 선입니다. 큰 은혜를 베풀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사울의 모든 재

산을 돌려줍니다. 이것은 엄청난데 큰 것입니다. 므비보셋이 주변의 친척들에게 모두 배분해도 남은 만큼의 엄청난 재산을 돌려주겠다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총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풍성하게 옵니다. 최소화해서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최대한으로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삶입니다. “오리를 가고자 하면 십 리를 가짜라”, “오른뺨을 치면 왼뺨을 대라”, “겉옷을 달라하면 속옷을 주리”

사실 그렇게 까지 하지 않아도 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할 때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었습니다. 보통 사람들의 상식으로로는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되는 일입니다. 지금 다윗의 행동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사울의 재산을 돌려주겠다고 했을 때 아마 주변의 신하들이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은총

둘째 다윗이 므비보셋에게 ‘항상 내 식탁에서 함께 먹을 것이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일입니다.

사울의 재산만 돌려주는 것도 엄청난데 그것뿐만 아니라 므비보셋은 다윗과 매일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경제적인 보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므비보셋을 가족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을 통해 베푸신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다윗의 식탁에서 누구와 함께 식사를 했을까요. 다윗의 여러 가족들 아닐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똑똑하고 영리했던 암논, 흠 잡을 데 없이 잘생기고 멋진 압살롬, 또 천재 솔로몬 등 다윗의 자녀들이 함께 식사하는 자리에 사울의 손자이자 요나단의 아들인 므비보셋이 함께 했습니다.

당시에는 신체적 결함이 있는 사람들은 왕 앞에 오지 못하게 하는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므비보셋은 장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왕과 함께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세상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사건입니다.

우리나라에도 다윗과 같은 은총을 베푼 분이 계십니다. 바로 손왕원 목사님입니다. 자신의 아들을 죽인 공산당원을 양자로 삼고 같이 집회를 다니셨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얼마나 놀랍고 아름다운 장면입니까.

므비보셋과 같은 우리들

다윗이 므비보셋에게 베푼 하나님의 은총이면에 우리들의 모습이 숨어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므비보셋과 같습니다.

므비보셋이 태어날 때는 사울이 백성들로부터

사랑을 받던 때입니다. 그가 태어나자 온 나라가 기뻐했습니다. 므비보셋이 태어날 때처럼 우리가 이 세상에 창조될 때 하나님이 기뻐하셨습니다. 새벽 별이 노래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물의 상속자로 창조하셨습니다.

므비보셋의 잘못이 아니었지만 그는 다섯 살 때 고아가 되었고, 장애를 얻었고, 숨어사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태어날 때부터 우리의 선택과 상관없이 아담 안에서 죄인으로 태어났고, 영혼의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피해 숨어사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므비보셋이 왕을 피해 숨어살았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피하고 싶은 본능을 가지고 살고 있었습니다.

다윗이 므비보셋을 찾아 나섰습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찾아 나섰습니다. 아담에게 ‘네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받은 은총

다윗이 므비보셋에게 사울의 재산을 돌려 줄 뿐만 아니라 왕의 식탁에서 함께 먹을 수 있도록 해 준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왕의 자녀로 받아들이실 뿐만 아니라 왕의 식탁에서 함께 식사할 수 있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 성찬은 왕의 식탁입니다. 하나님의 식탁입니다. 이 식탁 앞에서 어느 누구도 서로를 비난할 수 없고, 제외될 수 없습니다. 모두 왕의 초대를 받아 식탁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찬에 참여하면 우리의 허물과 죄가 감추어지는 것입니다.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다윗이 므비보셋에게 은혜를 베풀 때 ‘요나단과 맺은 언약 때문’이라는 말을 되풀이 합니다. 우리가 은총을 받은

식탁에 초대된 사람을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다윗이 므비보셋을 어떻게 보호했는지 아십니까. 다윗이 아들 압살롬에게 배반당해서 쫓겨 갈 때 므비보셋이 불편한 몸 때문에 도망가지 못했습니다. 그때 므비보셋이 왕이 되려고 다윗을 배반했다고 오해를 하지만 다윗은 므비보셋을 믿어주었습니다. 이후 기브아 사람들이 사울의 자손을 내놓으라고 할 때도 절대 내놓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호하듯이 다윗도 므비보셋을 보호했습니다.

왕의 식탁에 초대된 사람들

시편 23편 5절에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신다’고 했습니다. 이 상은 밥상입니다. 식탁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원수가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식탁으로 초대하십니다. 어떤 원수도 왕의 식탁에 침범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천군 천사가 호위하고 있고 하나님의 군대가 지켜주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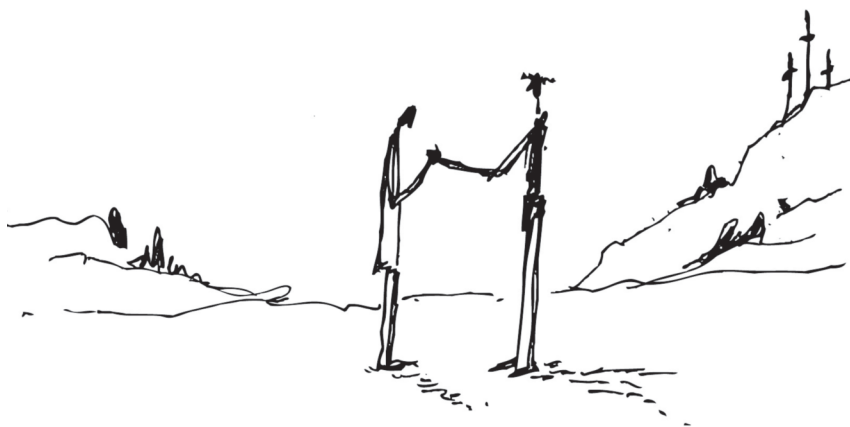
여러분, 왕의 식탁에 참여하는 은혜를 받았음을 감사하고 성찬의 축복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므비보셋처럼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왕의 식탁에 참여하는 놀라운 은총을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을 날마다 누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을 통해 므비보셋에게 임한 은총이 우리에게도 임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떠났던 인생,
황무지 같은 인생을 사는
우리를 초청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왕의 식탁에 참여하는 은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통과 과거의 죄와 허물, 모든 연약함을
씻어주시는 은총을 베풀어주시기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은총 속에서 사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날마다 자유함과 풍성함을 누리도록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 정리 정지은 기자 jji@onnuri.org
일러스트 yje



어디 있느냐고 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은총을 베풀 대상을 찾아 나섰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 앞에 나오게 된 것입니다.

므비보셋은 다윗이 베푼 은총을 받을 자격이 없었습니다. 돌려 줄 것도 없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 자격도 없고, 하나님께 돌려드릴 것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헌신, 시간, 재물, 재능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을 받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 필요없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한다고 하지만 방해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헌신을 받으시고 새로운 일을 행하십니다.

것은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신 언약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네게 은총을 베풀리라’는 말과 ‘요나단으로 인하여 네게 은총을 베풀리라’는 말의 의미가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분이 행하신 십자가의 희생에 근거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을 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토록 왕과 함께 식사할 수 있는 왕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영원토록 만왕의 왕이신 하늘의 식탁에서 식사하게 될 것입니다. 거기에는 바울도 있고, 요한도 있고, 베드로도 있을 것입니다.

원수들은 우리가 왕의 식탁에서 식사할 때 참여할 자격이 없다면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어떤 원수도 하나님의

순종하는 권사 되게 하소서

양재 권사수련회

“주 음성 듣는 깊은 교제의 시간되
길 바랍니다.”

형형색색 단풍으로 물든 완연한 가을이 접어든 지난 4일(월), 1박 2일 동안 Acts29 비전빌리지에서 양재 권사 수련회가 열렸다. 이번 수련회는 ‘순종하게 하소서’라는 주제로 예배와 한국기독교순교자기념관 방문, 토크쇼, 그룹 나눔 등 풍성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었다.

첫날 도작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이 재한 선교사는 자신이 만난 훌륭한 고한 권사들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놓으며, 아름답게 쓰임 받는 종에 대해 메시지를 전했다. 점심식사 후에는 한국기독교순교자 기념관을 방문해 한국 순교자에 대한 흔적과 기록을 관람했고, 오후예배에서 강사로 나선 박영희 선교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순종의 본을 보이셨던 것처럼 우리도 영을 깨닫기 해 순종의 훈련을 해 나



수련회에 참석한 양재 권사들이 하용조 목사 묘 앞에서 기도를 하고 있다.

가야한다고 강조했다. 저녁 시간에는 이재훈 목사가 설교를 통해 어린이이처럼 자신을 낮추는 권사, 먼저 된 자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권사, 약할 때 강함을 경험하는 권사가 되길 바란다고 권면했다. 말씀 후에는 이재훈 목사와 이정선 사모를 한자리에 모셔 토크쇼가 펼쳐졌다. 권사들이 던지는 질문을 토대로 조호영 목사가 사회를 보며 진행했다. 러브 스토리 등과 같

은 개인적인 질문과 함께 교회가 나아
가야할 방향에 대한 심도 깊은 이
야기를 나누었고, 목사부부를 위해,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축복하는 시간
을 가졌다. 마지막 날은 수련회 동안
느낀 점과 순종에 대한 그룹 나눔이
진행되었고 박종길 목사의 마침 예배
로 권사 수련회가 은혜가운데 마무리
되었다.

/ 조은실 기자 ces@onnuri.org

“크리스천 CEO는 달라야한다”

CCF세미나, Andy Mills 강연

지난 2일(토) 크리스천CEO포럼(이하 CCF) 세미나에 Andy Mills(The Kings College 이사장)가 강사로 초청됐다. 그는 ‘믿음과 일’이란 주제를 가지고 60분 동안 강의했다. 자신의 삶을 간증하고, 크리스천 CEO로서 주어진 사명과 목적, 일(work)과 하나님의 방법 등에 대해 말씀에 비취 메시지를 전했다.

그는 강의를 통해 ‘일반 CEO에서 크리스천 CEO로 변화되면서 어떻게 다르게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풀어나갔다. 먼저 창세기 2장의 하나님의 창조 스토리에 우리를 개입시킨 말씀부터 살펴보았다. 그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직분과 은사를 관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구축하고 변형하며 창조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가야 한다”라고 크리스천 CEO로서의 역할을 되짚었다. 또한 “직장에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첫째는 탁월함을 추구하는 신실한 일꾼이 되어야 하고 둘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멍에를 메고 일해야 하며, 셋째 다른 이를 섬기는데 큰 가치를 두어야 한다”고 권면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창성

바로잡습니다

11월 3일자 'OEM, 오늘 고아 위한 특별예배!' 기사 중 고아 합창단을 한국입양 어린이 합창단으로 바로잡습니다.

64기 샤이닝 글로리
봉사자 기도모임

2014년 1월 19~22일 전주비전대에서 열리는 64기 사이닝 글로리를 위한 봉사자를 모집 중이다. 봉사자는 이전에 사이닝 글로리에 참가했던 참가자 중 자원해서 헌신하기를 원하는 분들이면 누구든지 가능하다. 오는 11일(월) 저녁 7시30분 양재 비전홀A에서는 봉사자들을 위한 기도모임이 진행된다.

한편 온누리교회 영성에 맞게 수정
하고 보완해서 새롭게 만든 영성훈련
프로그램인 ‘사이닝 글로리’는 영적
치유와 회복 그리고 하나님의 빛을 비
추는 영적인 리더로 세워지는 것을 목
표로 삼고 있다. 문의: 신정금 간사
(02-3215-3744) / 오은지 기자

/ 오은지 기자



하나님의 사랑은 어메이징 그레이트(놀라운 은혜)!

지난주일(오늘) Orphan Sunday(고아 주일)를 맞아 서빙고와 도곡 영아예배에서 고아 위한 특별 예배가 진행됐다. 서빙고 영아예배에서는 한국인양 어린이 합창단의 아름다운 하모니와 바이올리니스트 수지 고의 ‘어메이징 그레이스’ 연주로 은혜 충만한 예배로 드려졌다. / 조은실 기자

/ 조은실 기자

류모세 선교사의 열린다 성경

나사로와 수전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요11:25-26).

이 말쑥은 공생애 시역 중 예수님이 행하신 수많은 기적들 가운데 메시야로서 자신의 능력을 가장 극적으로 보여준 사건이다. 예수님이 자신을 ‘부활과 생명’으로 선포하신 장소는 감람산이었고, 시간적으로는 ‘수전절’ 절기가 지난 지 얼마 되지 않은 겨울이었다. 수전절은 주전 164년, 유대 달력으로 키슬레브월(12월) 25일에 일어난 상전 정화 사건을 기념해서 제정된 절기다. 3년 전인 주전 167년, 같은 날짜인 키슬레월 25일을 기점으로 전 유대 땅에서 유대인들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할례와 안식일의 준수가 금지되고 성전에서는 매일 드러지던 상번제가 강제로 폐해졌다. 대신 성전에 제우스 신의 제단이 세워지고 유대인들이 가장 혐오하는 동물인 돼지가 희생제물로 바쳐졌다.

결국 마카베오 가문 제사장을 중심으로 일어난 3년간의 봉기가 성공하면서 성전은 정화되고 다시 재봉헌되었고, 이 날을 기념해서 제정된 절기가 ‘성전 봉헌절’ 또는 ‘수전절’이다.

요한은 수절절과 함께 겨울을 언급하고 있는데, 이는 단순한 계절적인 겨울을 넘어서 종교적 탄압으로 인해 유대 역사에서 가장 질척 같은 어둠과 죽음의 시간, 즉 ‘영적인 겨울’이었던 당시의 상황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나사로가 죽는 때는 수절절이 지난 후 며칠, 즉 1월경이었을 것이다. 1월은 현대 이스라엘에서도 가장 추운 계절이고 성서시대에는 피랍과 그로 인한 합병증으로 1년 중 사망률이 가장 높은 때였다. 죽음과 어두움의 기운이 이스라엘 땅을 가장 질척 드러운 이 시기에 예수님은 자신을 ‘부활과 생명’으로 선포하신 것이다. 감람산은 어떤 곳일까? 유대인들에게 예루살렘 동쪽에 있는 감람산은 죽은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는 곳이다. 지금도 감람산 비탈에는 죽은 후의 부활을 소망하는 수많은 주검들이 묻혀 있다. 죽은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는 감람산 위에서, 예수님은 마중 나온 마르다에게 자신을 부활이요 생명으로 선포하심으로 메시지의 효과를 극대화하신 것이다. / 류모세 선교사 (영리다 성경 아카데미 대표)



풍요로움의 계절 가을을 즐겨요!

온누리요양센터, 사랑사랑 가족나들이

지난 10월 31일 온누리요양센터의 어르신들은 가족과 함께 ‘이천쌀문화축제’에 다녀왔다. 어르신들은 다양한 공연과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연신 즐거워했다. 또한 완연한 가을 풍경을 즐기며 쉬기도 하면서 나들이를 즐겼다.

고싸움, 마당놀이, 풍물놀이와 같은 볼거리가 가득했고, 직접 탈곡기를 돌려보고 맷돌을 돌려 콩가루를 내리고 떡매를 내려쳐 손수 작업한 곡물로 찹쌀떡을 만들어 먹는 시간도 가졌다.

특히 이날 양재 캠퍼스 강남B공동체 지체들이 봉사자로 섬기며 이날 어르신들의 이동보조, 식사보조 등을 담당하며 가을 나들이에 함께 참여했다.

어르신들과 함께한 가족들은 “한걸음 한걸음이 힘들고 사람이 봄비는 곳에서 쉽게 피곤해지는 어르신들을 모시는 것이 어려워 나들이는 엄두를 내지 못했는데 이런 시간을 마련해 주셔서 너무 고맙다”고 전했다.

/ 조유진 기자 ujin@onnuri.org

Love Sonata 기도제목

11월 11일(월) 이재준 목사님께 말씀의 지혜와 능력을 부여 주소서.
 11월 12일(화) 교화부흥세미나를 통해 일본교회가 하나님의 비전을 보게 하소서.
 11월 13일(수) 가스펠 나이트와 CEO포럼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소서.
 11월 14일(목) 러브소나타를 통해 많은 일본인들이 구원을 얻게 하소서.
 11월 15일(금) 일본 땅의 우상이 무너지고 예수님의 이름이 높아지게 하소서.
 11월 16일(토) 일본 땅에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11월 17일(주일) 모든 일본 교회에 예배 부흥과 선교 부흥을 주소서.

남양주

“초심으로 돌아가 주님 목적 붙잡는 교회 되십시오”

창립 9주년 감사예배

2004년 수도권 동북부 지역 중심에 Acts29 비전의 깃발을 꽂은 남양주 온누리교회가 창립 9주년을 맞아 감사예배를 드렸다.

지난 주일(8일) 남양주 2부 예배 때 창립주일을 감사하는 특별한 순서가 마련됐다. 정대서 장로의 대표기도 후에 세라핌합창단의 찬양 ‘생명의 양식’, ‘성도들이 행진할 때’ 이 불려졌고, 9주년을 축하하는 의미에서 각 순에서 만든 축하영상이 상영됐다.

이날 반태호 목사(서빙고 온누리교회)가 ‘성령충만한 교회(엡 5:15-21)’를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반牧사는 “작은 사무실에서 작은 순처럼 시작된 지 9년을 맞았다. 만족할 상황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와준 것이 대단하다”면서 남양주 성도들을 격려했다. 이어 “안주하지 말고 교회를 세우신 주님의 목적을 붙잡고 다시 한 번 초심으로 나아가길 바라며, 온누리 이름 담게 살아가는 남양주가 되길 바란다”고 권면했다.

예배 후에는 목회자, 장로들이 함께 하는 케이크 커팅식이 있었다.

박덕현 장로는 “9주년이라는 시간이 참 빨리 간 것 같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교회의 좋은 자원인 30~40대 성도들을 잘 지

원하여 15주년이 되었을 때는 동부 지역에서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좋은 교회로 거듭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임헌태 피택장로도 “조그마한 사무실에서 30명이 새벽기도를 하던 때가 엇그제 같은데 벌써 9주년이 되었다”고 고백하며 “이제 새로운 10주년을 향해 부흥하고 지역사회에 큰 영향력을 미치는 남양주 온누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04년, Acts29 비전의 시작

북쪽으로는 포천, 의정부, 동쪽으로는 가평, 양평, 남쪽으로는 광주, 하남, 서쪽으로는 구리, 서울과 접하는 수도권 동북부 지역의 중심에 위치한 남양주 온누리교회.

서울을 비롯한 타 수도권 지역으로 접근이 용이하다는 지역적 특성에 따라 광활한 지역에서 Acts29 비전을 선포하고 2004년 11월 창립예배를 드렸다.

남양주 온누리교회의 모태는 서빙고에 출석하는 남양주 인근 지역에 거주하던 네 가정. 그 기도모임을 시작으로 인근 2003년에는 이재훈 목사가 남양주 공동체 담당목사로 취임했고, 그해 9월에는 오남, 평내, 덕소에서 모



창립 9주년을 맞아 떡 케이크를 준비했다. 사진은 서빙고, 남양주 목회자 및 장로들이 함께한 케이크 커팅식.

인 23가정과 함께 남양주 기도처가 오픈돼 새벽예배가 시작됐다.

초대교회 공동체처럼 매일 새벽기도를 드리고 아침 식사를 함께하던 초창기 27가정에서 9년이 지난 지금은 2개 공동체(남양주, 구리), 8개 다락방, 42개 순이 됐다. 80여 명으로 시작한 성도의 수도 1,100여 명이 모이는 교회로 성장했다.

/ 정지은 기자 jji@onnuri.org

■ 2013년 남양주 행사 ■

1. 전교인신약성경 함께 읽기
2. 설날 세배드리기
3. 리더십 수련회, 고난주간 성만찬
4. 부활절 세례, 달걀콘테스트, 야외예배
6. 터키아웃리치(본부)
7. 일본아웃리치(남양주, 구리, 대청)
8. 전교인 수련회
9. 하반기 개강예배
10. 성지순례
11. 창립 9주년 예배

평택



임삼식 목사의 인도로 3일 동안의 치유집회가 평택 온누리교회에서 열렸다.

“이해하고 공감함으로 전도하십시오”

박인숙 권사 초청 전도특강

“전도대상자의 마음을 이해하고 공감해야 전도할 수 있습니다.”

지난 10월 13일, 20일 2주 동안 열린 전도특강을 통해 평택 성도들의 전도의 열정이 솟았다. 이날 서빙고 5분 전도법에서 섬기고 있는 박인숙 권사를 초청해 전도에 대한 실제적인 방법과 상황별 대처법 등을 배웠다. 박인숙

권사는 “나 중심에서 대상자 중심으로 생각하고 이해해야 전도할 수 있다”고 강조하며 전도는 어려운 것이 아닌 모두가 할 수 있는 것임을 설명했다.

이번 세미나에는 60여 성도가 참석해 강의와 함께 전도실습과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다.

/ 정지은 기자 jji@onnuri.org

영과 혼과 마음 보존하는 그리스도인의 삶

2박3일간 치유집회 열려

치유와 회복을 위한 집회가 평택 온누리에서 열렸다. 이번 집회의 주제는 ‘회복’. 강사로는 한국예수전도단 치유 강사인 임삼식 목사가 초청됐다.

지난 11월 1일부터 3일까지 2박3일 동안 진행된 이번 집회에는 매일 200여 명의 많은 성도들이 참석했다.

첫날과 둘째날 집회는 저녁 7시30분부터 2시간여 동안 진행됐고, 마지막 날인 3일은 주일인 관계로 오후 2시 예배와 함께 집회가 진행됐다.

임삼식 목사는 3일 동안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마음(살전 5:23)’을 주제로 메시지를 전하며 평택 성도들이 ‘하

님이 주신 삶의 방식을 따라살 것’, ‘마음을 보존하며 살 것’, ‘온전함으로 나타나고 평강과 거룩한 성품을 갖고 살 것’을 강조했다.

특히 임 목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과 혼과 마음이 보존되길 원하신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한다”고 말했다.

/ 정지은 기자 jji@onnuri.org

기도의 본을 보인 다니엘처럼

중보기도팀 헌신예배

지난 10월 27일(주일) 오후 2시 예배가 중보기도팀 헌신예배로 드려졌다.

이날 예배는 올해부터 활성화되고 있는 중보기도팀원 및 사역자들을 격려하고 함께 교제를 나누는 취지에서 진행됐다. 총 60여 명의 성도가 참여해 예

배와 함께 사역팀을 위해 뜨겁게 기도했다.

이날 박철웅 목사(평택 온누리교회)는 ‘기도하는 공동체(단 2:14~24)’를 주제로 메시지를 전하며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 앞에 문제를 내려놓고 기도한 다니엘처럼 기도하는 중보자로서의 삶을 살 것을 권면했다.

/ 정지은 기자



사랑부 가족캠프

‘앙코르 매일 그대와’

오랫동안 사랑해야 할 長愛

‘앙코르 매일 그대와’는 강동 온누리교회 사랑부 가족캠프의 이름이다. 지난 10월 26일(토) 남양주 국제광림비전랜드에서 강동 사랑부 식구들과 강동 지역 장애인 자녀들을 둔 가족들이 함께한 캠프가 열렸다.

오전행사를 체육대회로 문을 연 가족캠프는 오후에는 사랑부 자녀들은 사랑부 교사들과 함께 자연 캠프로, 부모들은 하이패밀리 송길원 목사와 김향숙 사모가 진행하는 부부세미나로 흠뻑 어졌다. 부부세미나를 인도한 송길원 목사는 ‘사랑과 존중:가정을 세우는 두 가지 기둥’이라는 주제로 메시지를 전했고, 김향숙 박사는 동작 치료를 통해서 그동안 자녀 양육으로 지쳐있던 부모들의 마음을 회복하고 치유하는 행복한 시간을 가졌다. 특별히 부부가 함께 춤을 추고 부둥켜안으며 온몸으로 소통하는 뜻 깊은 시간이었다.

그간의 시름이 감사로...

‘앙코르 매일 그대와’의 하이라이트는 가족 음악회였다. 사랑하는 자녀들이 건네는 장미 한 송이를 받아 들고 실내악의 연주를 따라 초청된 부모들이 차례대로 콘서트장으로 입장했다.

바리톤 김효배 형제의 공연, 오페라 피가로의 결혼 중 ‘Non piu andrai(더 이상 날지 못하리)’로 콘서트의 문을 열었고 이어 ‘10월의 어느 멋진 날’을 노래하자 함께한 이들의 입에서 탄성이 터져 나왔다. 오보에 이숙현·비올라 한동희·재즈 피아노 배원신 자매 등 최고의 연주자들이 함께 어우러져 아름다운 선율을 더했고, 강동 사랑부가 자랑하는 배성연의 피아노와 안수연의 플루트 연주가 시작되자 지켜보던 사람들의 열렬한 환호가 쏟아졌다. 결코 악동뮤지션에 뒤지지 않는 강동 사랑부의 실력과 보컬 김민지 김성훈 남매의 노래로 가을콘서트는 절정에 이르렀다.

마지막 연주가 끝나고 무대의 조명이 하나둘씩 꺼지면서 사랑부 아이들의 영상 편지가 흘러나왔다. “엄마 아빠 사랑해요”, “엄마 최고”, “아



빠 최고” 외치는 자녀들을 지켜보며 부모들은 감동에 눈시울을 붉혔다. 그동안의 시름이 감사로 바뀌는 시간이었다.

온가족이 웃고 울고 안고 함께 뒹굴며 보낸 하루 동안 사랑부 가족 캠프는 그렇게 하나가 되어 영글어갔다. 송길원 목사는 장애(障)를 장애

(長愛: 오래오래 사랑하다)로 설명하며 “우리의 자녀들은 오래도록 사랑해야 할 아이들입니다”라고 이야기했다. 그리고 보면 우리 모두가 오래오래 사랑해야 할 사람들이 아닐까!

/ 배성우 목사(강동 사랑부 담당)



인/터/뷰

“위로받고 마음 나누는 행복한 시간”

남편이 가게를 해서 일 년 중에 4일 정도밖에 못 쉬는 상황이라 더욱 어려운 발걸음이었습니다. 처음 보는 얼굴들이라 어색했지만 남편이 체육대회에 조금씩 참여하게 되면서 서먹함이 가시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부부세미나는 저에게 참 의미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내와 남편 사이에 언제나 자녀들이 놓여 있어 서로를 온전히 바라볼 수 없다’는 강사님의 말씀에 그동안 아이로 인해 씨름했던 시

간들을 이해받는 것 같아 위로가 되었습니다. 오랜만에 남편과 함께 마음껏 웃을 수 있었습니다. 가족캠프는 저희 부부에게는 특별한 시간이었고 많은 힘을 공급받는 시간이었습니다. 무엇보다 한층 가까워졌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목요어머니 기도모임도 참석해 마음을 나누고 싶습니다.

/ 이광섭 형제 어머니



“진정한 가족같은 느낌 받았습니다”

캠프의 처음부터 마칠 때까지 저희를 향한 세심한 배려가 감동 그 자체였습니다.

정성스럽고 고급스럽게 차려놓은 다과와 이름답게 장식된 화관 심지어 리본 장식 하나까지도 따뜻한 사랑이 마음으로 전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정말 대접받고 환대받는다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무엇보다 아이들을 대하는 선생님들의 표정과 저희들을 섬기는 분들의 모습 속에서 진심어

린 사랑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가족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짧은 만남이었지만 긴 여운이 남는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공동체로 구나 하는 마음으로 감동받은 순간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박준우 어머니



마포공동체, 맞춤전도집회

예수님과 함께한 ‘행복한 가을 나들이’

지난 3일 남한산성 목상의 집에서는 마포공동체가 자체적으로 준비한 맞춤전도집회가 진행되었다. 이 날 행사에는 50여 명이 참석해 결신 30명, 20명이 다시 한 번 생각해보겠다는 답변을 했다. 마포공동체는 지난 7월부터 본격적으로 맞춤전도를 기획하면서 8주간 매주일 팀장 모임, 통합 순모임, 요청자 모임 등 기도로 집회를 준비하며 공동체가 하나가 되었다. 성우 서혜정 집사의 사회로 진행된 집회는 ▷7080노래(영상필 외 찬양팀) ▷대학 워십댄스팀 특송 ▷이과재 목사 색소폰 연주 ▷식사 및 교제 ▷축하 ▷환영영상(이재훈 담임목사, 탤런트 강석우, 윤유선) ▷메

시지-단 하나의 메시지(벧전 3:18~20) ▷결신의 시간 ▷환송 등의 순으로 이뤄졌다.

이재호 장로는 참석자들을 환영하며 “이곳에 오신 여러분은 우리가 부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초청하신 것”이라며 “짧은 인생을 살면서 한 영혼을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른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기도한다”고 했다.

메시지 선포 및 결신은 목상의 집 실내에서 진행되었다. 허원희 목사는 ‘천국과 지옥’ 영상을 보여주며 “불편한 얘기일지 모르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가는 것, 그것이 진실”이라



면서 “여기 계신 단 한분도 지옥에 가면 안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꼭 천국에 가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전도집회 PD(총괄)로 섬긴 이익식 집사는 “성경책과 포토존에서 찍은 사진 선물을 받고 아주 행복하게 돌아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오늘 참석하신 분들이 우리처럼 하나님 품 안에서 즐겁게

살아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마포공동체는 결신 카드를 제출한 모든 대상자들을 다시 초대해, 양육과정을 거쳐 세례를 받을 수 있도록 요청자들과 함께 후속 프로그램도 진행할 계획이다.

/ 조유진 기자 uj@onnuri.org



생일 및 기념일 축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날 맞춤전도집회에서는 11월의 생일이나 결혼기념일 등 특별한 날을 맞은 초청대상자들을 무대 앞으로 불러서 준비한 케이크 커팅식을 진행했다.

마포공동체 식구들은 참석자들을 향해 축하노

래를 부르며, 오늘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새로운 축복의 탄생일이 되길 한 마음으로 기도했다.

노란 은행잎과 붉게 물든 낙엽들로 둘러싸인 아름다운 목상의 집에서 이뤄진 마포공동체의 맞춤전도집회는 참석자 50여 명 중 30명이 결신하는 귀한 결과를 얻었다.

성경읽는 차세대, 그 현장을 가다!

“온몸으로 경험하고 느끼는 신나는 성경이야기”

지난 11월 2일 서빙고 누리홀과 경찬홀에는 성경공부를 하기 위해 모인 어린이들로 가득했다. 이 날 ‘키즈 바이블(Kids Bible)’의 마지막 수업이 진행되었다. 이번 키즈바이블은 ‘신나는 성경탐험(4복음서)’을 중심으로 초등학교 1~2학년인 저학년과 3~6학년의 고학년 반으로 나누어 성경을 총 50개의 모션을 통해 배우는 시간을 가졌다.

강의는 10월 19일부터 3주 동안 매주 토요일마다 서빙고, 양재(도곡)에서 차세대 교역자들이 돌아가면서 인도했다. 참석한 어린이들은 서약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시작해, 사복음서 지도를 스크린으로 보면서 눈으로 성경 속 지리를 익히고 카드 게임을 통해 교제를 나누며 성경을 배웠다. 또한 50개의 모션(동작)을 표현하고 외우면서 성경을 온몸으로 경험했다.

어린이, 학부모, 교사를 통틀어 320여 명이 참석했으며 어린이들은 물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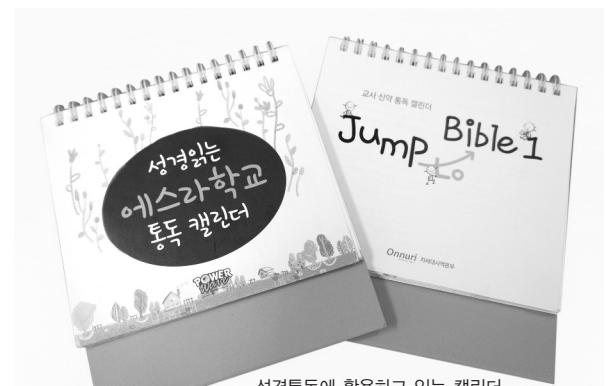


학부모와 섬기는 선생님들의 반응이 좋아서 추후 성경 전체를 배울 수 있도록 확대해 진행할 예정이다.

노희태 목사(차세대 본부장)는 “어릴 때 듣고 경험했던 성경이야기가 결국 성인이 되었을 때 바라보는 세상적 가치관에 큰 영향을 미친다”면서 “특히 아이들은 동작이라든지 교구나 장난감을 통해 직접 만져보고 경험하며 재미있게 배운 성경을 더 잘 기억한

다. 이러한 경험이 성인이 되어서도 기억에 남아 삶을 이끌어가는 힘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덧붙여 “앞으로는 서빙고와 양재 뿐 아니라 지역 기도처 라든지 더 다양한 곳에서 이런 프로그램이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 중에 있다”고 밝혔다.

/ 조유진 기자 uj@onnuri.org



성경통독에 활용하고 있는 캘린더

“청소년, 선생님들도 성경읽기에 빠졌어요!”

한편 파워웨이브(청소년)와 교사대학에서도 성경읽기 프로젝트가 한창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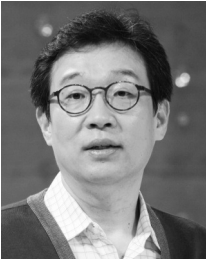
파워웨이브는 지난 10월 21일(월)부터 4복음서를 제외한 신약성경(사도행전~요한계시록)을 습득하는 ‘성경읽는 에스라 학교’를 진행중이며, 주일 예배와 소그룹을 통해 에스라 캘린더(교재)를 활용해 성경통독과 퍼즐퀴즈 등을 하고 있다.

이번 학교는 세상 문화에 익숙해져

가는 청소년들이 말씀을 통해 영적으로 깨어나 세상을 향해 믿음의 영향력으로 나아가게 하자는 취지로 마련되었다.

또한 10월부터 총 6주간 진행되는 교사대학 Jump to Bible1을 통해서 교사들은 신약성경의 정해진 분량을 개인별로 통독하고, 주일교사 순별 나눔을 통해 성경을 읽으며 깨달은 은혜를 함께 나누고 있다.

하나님과의 일대일 만남 그 기쁨 함께 나누는 ‘일대일 제자양육’



하나님께 서는 아담 한 사람을 만드시고,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부르시고, 모세 한 사람을

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지만 그 사람 한 사람과 깊이 교제하길 기뻐하십니다. 일대일의 만남으로 말이지 이 하나님과의 일대일의 만남의 기쁨을 다른 사람과 함께 나누는 것이 일대일 제자양육 성경공부입니다.

제자 양육이라는 표지가 조금은 부담스럽지만 사실은 제자가 아닌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을 해산하는 고통의 과정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탄생의 기쁨을 경험한 양육자는 우리네 어머니들 처럼 곧 그 고통을 잊고 기쁨의 기대를

갖으며 또 다른 누군가를 품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을 29년여 동안 거쳐 오늘 의 온누리가 있게 된 것입니다.

한 사람이 또 다른 한 사람을 만나 16 주 이상을 함께해야 하는 이 과정이 결코 쉽지 않은 않지만 이러한 시간을 통해 자신이 먼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절실함을 깨닫게 되고 적극적으로 말씀 앞에 자신의 삶을 적용하는 실천적인 신앙인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서로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며 성숙해져가는 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의 바람직한 모습인 것입니다. 소통이 강조되는 있는 사회의 흐름 속에서 우리 교회는 무엇으로 서로 소통할 것인가를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자신의 감정에 치우친 고백도 아니요, 성공지향주의에 물이든 소망도 아닙니다.

우리가 소통하고 나누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나의 삶을 나누고



나의 아픔을 고백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온전한 치유와 회복을 허락하십니다. 또한 새로운 소망과 기대 가운데 미래를 꿈꾸게 하십니다.

일대일의 날을 맞이하여 우리의 일대일이 정말 하나님께서 부탁하신 제자 양육의 한 도구로 사용되고 있는지 우리는 점검해야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 한 영혼을 낳기를 기뻐하는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에게 회복되기를 기도합니다.

/ 유수열 목사(일대일사역 위원회 담당)



2013년 일대일사역 현황

일대일 전체	일대일 대외사역
총 동반자 수: 2731 명	국내외 31개 교회 섬김
총 양육자 수: 1153 명	동반자 및 양육자 과정 267명 수료

일대일 대외사역 - 현장의 소리!

지난 6일(수) 서울시 서대문구 홍은동에 위치한 서부제일교회(대한예수교장로회)를 찾았다. 서부제일교회는 40여 년의 역사를 지닌 전통있는 교회로, 지난 2010년 온누리 일대일 대외사역팀이 제자양육을 진행했던 곳이다. 그 이후 서부제일교회는 매년 상하반기에 일대일 입학 및 수료예배를 진행하고, 동반자와 양육자를 양성하며 일대일 제자훈련을 잘 정착시켰다. 2011년부터는 교회 자체양육에 돌입해 매년 한 학기마다 동반자 20~25명, 양육자 20여 명을 꾸준히 배출해 내고 있다. 이 날 서부제일교회 내 카페에서 김한원 담임목사와 만났다. 김 목사와의 인터뷰를 통해 온누리 일대일 대외사역에 관한 생생한 현장의 소리를 들어보았다.

/ 조유진 기자 ujin@onnuri.org

인/터/뷰

“일대일 통해 교회가 더 건강해 졌습니다”



김한원 담임목사
(서부제일교회)

“제가 서부제일교회에서 목회를 시작하고 양육에 대한 새로운 그림을 그리면서, 어느 교회가 성도들을 잘 양육하는지에 대해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2009년도에 전주비전대에서 열린 일대일세미나에 참석하게 되면서 일대일 시스템이 잘 정착되어있는 온누리교회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2010년 온누리 일대일사역팀을 통해 저를 비롯해 시무장로님 등이 16주간의 일대일 과정을 마쳤습니다. 이후 하반기에 추가적으로 동반자와 양육자 과정이 진행되었습니다. 이를 시작으로 이제는 저희교회에서

매년 상하반기에 일대일 입학 및 수료예배를 진행하고, 한 학기마다 동반자 20~25명, 양육자 20여 명이 수료하고 있습니다. 일대일 제자양육과 함께 큐티도 진행하고 새로운 양육시스템을 운영하면서 신·구 교인들이 자연스럽게 하나가 되어 교회 분위기가 더 좋아졌다고 생각합니다.

일대일을 도입한 이유는 신앙생활은 오래되어도 기독교의 핵심진리에 대한 체계적인 양육을 받지 못한 성도가 많다는 점과, 교회의 건강성이 바로 성도의 건강성이기에 성도 한 명 한 명을 스스로 일으키는 다이나믹한 일대일의 힘 때문입니다. 또한 일대일만이 가지는 독특한 매력인 ‘관계성’으로 서로 친해지며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것 또한 일대일의 큰 장점입니다.

온누리교회는 교회를 위한 교회, 하나님이 세우신 특별한 교회라고 생각하며, 필요할 때 아무런 조건없이 달려와 일대일 제자양육에 도움을 준 온누리교회에 너무 감사드립니다.”

“일대일을 통해 살아 숨쉬는 교회를 느낍니다”



신갑섭 집사
(일대일 대외사역팀)

“10여 년간 일대일사역을 해왔습니다. 저는 특히 대외사역을 많이 했는데, 군대라든지 여러 교회들 심지어 거제도와 같이 멀리 떨어진 섬을 찾아가 섬겼습니다.

직장생활을 병행하며 때로는 몸이 힘들기도 했지만 일대일 하는 것 자체가 너무 좋았고, 무엇보다 일대일을 하면서 오히려 은혜를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일대일 대외사역을 본격적으로 하면서 저희들이 일대일을 한 교회가 일대일 제자양육 시스템을 잘 정착하고, 그 교회가 살아서 움직이는 것을 보면서 큰 보람을 느낍니다. 지금은 대외사역이 과거에 비해서 활발하지 못했는데, 그 열정이 다시 회복되길 바라면서 젊은 세대들도 일대일 사역에 함께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대일 제자양육이라는 사역에 제가 도구로 사용됨에 감사하며 앞으로도 우리 교회가 늘 일대일에 대한 열정이 충만하길 기대합니다.”

일대일 간 증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일꾼으로 거듭날 것”

8월 21일부터 26일까지 광운누리교회에서 진행되었던 일대일 양육은 하나님께서 왜 굳이 광운누리교회까지 가서 일대일 양육을 하게 했는지, 그 섭리적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번 일대일 양육을 통해 말씀에 근거해 내 자신이 회복되는 것과 부르신 곳에서 나에게 맡겨진 사역의 비전을 다지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동반자와 저는 많은 부분에서 공통점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행복했던 시절과 어려웠던 시절의 경험이 그였고, 삶의 비전과 기도 제목이 비슷했습니다. 특히 청년 사역에 대한 비전

은 서로를 깜짝 놀라게 할 만큼 우리를 묶어주는 동력이 되었습니다. 동반자는 광운누리교회에서 청년 순장으로 섬기고 있었고 나는 학교에서 청년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확신 부분에서 말씀에 근거해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확인하고 그리스도가 중심되는 삶의 기반을 분명히 했습니다. 성경에 대해서 나누는 부분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하기 위해 말씀 암기와 묵상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한다는데 공감했고, 기도를 생각할 때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실제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전도 부분에서는 전도의 생활화에 대해서 많이 나누었습니다. 광운누리교회의 경우 성전은 큰 데 비해 성도 수가 상대적으로 적다는 얘기에 이르면서 우리는 복음 자체로부터 나오는 전도 전략과 전도의 야성을 회복할 필요가 있음에 주목했습니다. 성령충만을 다루는 부분에서 우리는 성령이 인도하는 삶이 주는 유익함에 대해서 많이 나누었고, 성령 충만의 열매를 하나하나 점검하면서 성령 충만한 삶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원하는 삶이요 진정한 크리스천의 모습임을 다시

한 번 자각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일대일 나눔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깊숙이 개입하고 계심을 알 수 있었습니다. 가장 알맞고 필요한 시간에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일대일 양육을 하게 하시고, 그것도 낯선 이국에서 그렇지만 비전이 같은 동반자와 나눔을 가지게 함으로써 나 자신의 현 위치를 점검하는 은혜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이번 일대일 양육을 통해서 부르신 이곳에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일꾼으로 거듭나고자 하는 각오를 새롭게 할 수 있었습니다.

/ 이종우

“하나님께 모두 맡겨 버리는 연습을 할 수 있었어요!”

처음 호주 일대일 대외 사역에 대한 얘기를 듣고 기대도 되고 두려운 부분도 있었는데, 고민 끝에 가족이 같이 사역팀에 참여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하지만 날씨가 가까워질수록 기대와 설렘은 사라져가고 두려움과 걱정만 커져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져다 준 가장 큰 이유는 제가 현지에서 한국 사람이 아닌, 호주 사람과 일대일을 해야 한다는 부담감 때문이었습니다. 떠나는 날 인천에서 저녁 비행기를 타고 11시간을 비행하면서, 계속 영어 교재를 들어다 보느라 한 시간도 채 눈을 못 붙인 상태에서 호주 땅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

리자마자 쉬는 시간도 없이 바로 현지 교회로 향했고, 시작 예배를 드린 후 잔인하게 바로 일대일 양육이 시작되었습니다.

저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걸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면서, 하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알아서 책임져 주시길 몇 십 번 기도하면서 첫 대면의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양육을 시작했지만, 한 시간 두 시간 시간이 지날수록 서로에 대해 알게 되고, 이해하게 되면서 점점 재미가 더해지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또한 3일째 되는 날에는 동반자가 운영하는 공장을 방문하여 같이 일을

도우면서 서로 더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4일 간의 양육을 마치고 난 후, 처음 만났을 때의 어색함은 사라지고,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된 기분을 서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좋은 동반자를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줄 미리 알았다더라면, 출발하는 비행기에서 편히 쉬며 여행을 즐길 수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지막 헤어지면서 저희는 서로 부둥켜 안고 영영 물면서 이별의 슬픔을 나눴습니다. 몸은 떨어져 있지만 지금도 서로 소식을 전하며, 하나님 안에서 가족 됨을 소중히 느끼며 지내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대외 사역에 참여하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강하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도저히 제 실력과 능력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너무 아름답게 완성시켜 주셨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대외사역을 통해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 더 친밀하게 다가올 수 있는 기회가 열렸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번 일을 통해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선물은 지금까지 내가 계획하고, 내 지혜로 해결하려 했던 수많은 일들을 하나님께 맡겨 버리는 연습을 아주 쉽게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 김대현

“예수님의 사역과 주님 뜻을 깊이 묵상한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의 확신이 내 안에 있었다고 하였으나 그것은 겉 모습뿐인 나의 신앙생활이었다는 생각이 나를 주님 앞에 회개하며 용서를 구하는 고백을 하게 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고, 어떤 일을 하셨으며 무엇을 하고 계신지 깊이 알지도 못하고 깨달으려고 하지도 않았던 나의 신앙의 모습이 너무도 주님 앞에 부끄럽고 초라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번 일대일 제자양육 성경공부 훈련을 받게 된 것은 나를 아시는 예수님이 인도하셨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호세아서 6장 6절 말씀이 나의 마음을 깨닫게

하였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모든 훈련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예수님의 사역을 알아야만 우리도 그 사역에 참여하여 말씀대로 행하고 지키며 순종하는 삶을 드릴 수 있다는 것을, 또 말씀과 기도를 공부하면서도 말씀이 영의 양식이 라는 막연한 생각도 깨졌습니다. 말씀 안에 거할 때 우리의 삶의 변화가 시작되고 우리의 속사람이 변화됨을 이전에 말씀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였던 어리석음, 무지함을 나의 모습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시험을 이기는 삶을

공부할 때 저에게 많은 시험이 있었습니다. 마음이 복잡하고 많은 생각으로 사단마귀가 나를 공격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기게 하시고 시험 당할 때 때로는 방패막이 되어주시기도 하였습니다.

우리는 믿는 자라 말하면서 형식에 치우친 신앙인이기에 순종하지 못한다는 것을... 내가 순종하지 못함은 아직도 내 안에 교만과 자아가 있으며, 내 삶을 우선으로 살아가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일대일 제자성경공부를 하면서 많은 것을 생각하며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깊은 마

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내가 알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여도 하나님의 속성과 예수님의 사역을 다시 내 마음에 깊이 묵상하며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어야 할 것이며 우리는 하나님의 발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집인 것을 잊지 말고 날마다 기억하고 마음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저를 양육하신 양육자님께 감사드리며 배운 자로서 가르치는 일에 부족함이 없도록 더욱 노력하며, 힘쓰며, 겸손하게 섬기며,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 이미순

“사랑과 권위 안에서 자녀 양육합시다!”



지난 11월 6일 아펜젤러홀에서 35명의 여성들이 모인 가운데 수요특별여성예배 ‘어머니 기도회’가 진행되었다.

양지 수요특별여성예배, ‘어머니 기도회’

양지 수요여성예배가 ‘기도하는 어머니가 가정을 살립니다’를 주제로 진행 중이다. 지난 11월 6일에는 35명의 여성들이 아펜젤러홀에 모여 찬양과 기도로 예배의 문을 열었다.

특별강의에 앞서 김영배 목사(양지 온누리교회)는 시편 51편을 본문으로 짧은 메시지를 전하며, “시편 51편은 다윗이 죄를 범하고 자아를 발견하며,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때 어떤 마음으로 나아가는지에 대한 영적 도전을 주고 있다. 이 구절을 보면서 이 자리에 모인 여성 성도들도 어머니로서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어떤 마음으로 어머니가 되어야 하는 지를 발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어머니의 영향력’을 주제로 말씀을 전

한 이기복 교수(애틀랜트트리니티)는 <성경적 부모 교실>교재를 토대로 강의했다.

이 교수는 “가정의 영적인 분위기와 가정 안에 모든 것을 만들어가는 역할을 어머니가 한다”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자녀를 사랑과 권위 안에서 잘 양육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 밖에도 강의시간에 잘못된 사랑(과잉보호, 편애, 권위의 부재, 부모의 완벽주의)에 대한 예시를 들으며, 가정에서 가장 중요한 어머니의 역할과 자녀를 변화시키는 칭찬법을 전수하며, 자녀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곳에 모인 여성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권위로 자녀를 잘 양육할 것”을 다짐했다.

/ 오은지 기자 oej@onnuri.org

인/터뷰

“사랑과 권위가 함께하는 부모”



“강의를 들으면서 어떤 엄마인지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강의를 통해

평소에 아이들에게 칭찬이 부족한 엄마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기복 교수님께서 ‘부모는 사랑과 권위가 함께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를 돌아보며, 사랑은 부족하고 권위적인 엄마였던 것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랑으로 자녀들을 칭찬하는 엄마가 되는 방법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 유한나 성도

“칭찬과 사랑을 주는 부모”



“그동안 권위적인 부모였다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자녀들을 칭찬하는데 많이 인색한

제 자신의 모습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또한 강의 들으면서 자녀들에게 ‘잘하라’는 격려만 하고 ‘잘했다’고 칭찬할 줄 모르는 부모였던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자녀들이 좌절감을 많이 느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칭찬도 많이 하고 사랑도 많이 주는 것을 엄마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송혜영 성도

■ 양지에서 알려드려요!

온누리바이بل 클럽 OBC

하나님의 성품(임직자 필수과정)

일시: 11월 3일 ~ 12월 22일 매주일 2시30분

장소: 2층 언더우드홀

마라나타성가대원모집

대상: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싶은 분이면 가능

문의: 공애영 간사(081-331-8193)

“일본 곳곳에 거룩한 하나님 나라 세우자”

TIM Japan, 일본 선교전략 회의

지난 10월 31일, 11월 1일 각각 양일간 일본 고베에서 두란노해외선교회(TIM) Japan 전략회의를 열었다. 고베는 1988년 수해, 1945년 미군의 대공습, 1995년 한신고베 대지진 등으로 엄청난 피해를 입었지만 훌륭하게 복구된 일본의 대표적인 항구도시이다. 고베는 한신대지진 이전까지 일본최대의 항구이자 아시아 최고 항구 중에 하나였다.

이번 회의는 본부 및 일본에서 총 13명의 선교사들이 참석해 비전교회, 러브소나타, CGN 그리고 두란노서원 등 다양한 형태로 진행되고 있는 일본선교사역 안에서 TIM의 역할을 모색하기 위한 모임이었다.

개회예배에서 장재윤 목사(TIM Japan본부장)는 사도행전 8장을 본문으로 말씀을 전했다. 장목사는 “예수님께서 삭개오와 니고데모의 목마름을 해결해주셨듯이 말씀을 전하는 자나 받고 구원을 얻은 자나 기뻐하며 돌아가는 것이 바로 일본선교의 전략이 아닐까? 생각한다”며 “모두가 빌립처럼 사역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선교사들의 사역보고를 들은 후, 이준 총무(TIM)는 TIM의 설립의 목적을 상기시키며 교회개척을 향해 매진할 것을 역설했다. 특히 그는 교회개척운동(Church Planting Movements)을

예시로 들며, “한때 유행했다가 사라지는 운동이 되어서는 안 되고, 모든 선교사가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교회를 이루고, 그 교회가 또 다른 교회를 개척한다는 사도행전에 나타난 단순한 모델이 선교의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도육한 목사(두란노해외선교회TIM 본부장)는 “작더라도 급속한 세포분열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취하되, 무교회 지역에 이런 운동을 시도하는 지혜를 발휘해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그는 서구 선교사들이 모두 일본을 떠나는 현실 가운데서도 자리를 지키고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수고하는 선교사들을 격려하며, “CGN과 러브소나타가 거대한 항공모함과 같이 융단폭격을 했다면, TIM 선교사들은 지상군이 되어서 일본 곳곳에 교회, 즉 거룩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선교사들은 CGN과 러브소나타 등 그동안 온누리교회가 보내준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으로 일본의 영적인 분위기가 바뀌는 것을 체감하며, 일본교회를 대신해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또한 참석자들은 일본선교를 넘어 선교일본의 남은 과업을 완수할 수 있도록 일본교회와 한국교회를 사용하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며, 은혜 가운데 모임을 마무리했다.

/ 양판석 선교사(두란노해외선교회TIM)

‘더 멋진 세상’ 만드는 따뜻한 손길

필리핀 보훈섬 지원 답사

온누리NGO ‘더 멋진 세상’에서 지난 11월 5-8일까지 필리핀 보훈섬 긴급 지원을 위해 답사를 다녀왔다.

지난해 10월 15일 필리핀 남부지역 세부섬과 보훈섬에서는 진도 7.2도의 지진 피해로 33회의 여진이 일어나 이곳 주민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특히 보훈섬은 온누리 선교사 사역지로 00 선교사가 1988년 5월에 파송된 지역이다. 이번 피해로 인해 186명이 사망했고, 11명이 실종되

었으며, 583명이 부상을 당했다. 또한 34500채의 가옥이 파손되고, 22곳의 교량이 붕괴되는 등 극심한 피해를 입었다.

이에 더 멋진 세상(온누리NGO)이 현지 선교사로부터 긴급 지원 요청을 받고 비상식량 및 식수를 지원할 계획이다. 비상식량은 6명을 기준으로 한 가구당 1pack(2일분)으로, 쌀 2kg 라면 3개, 통조림 3개, 식수 4L 정도를 2회로 분할하여 지원할 예정이다.

/ 오은지 기자 oej@onnuri.org

온누리 선교사를 위한 1일 오리엔테이션

오는 11월 16일(토), 두란노빌딩 101호

선교사 준비생 및 관심자들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1일 오리엔테이션 OMO(Onnuri Missionary Orientation)가 오는 11월 16일(토) 두란노빌딩 101호에서 열린다.

예비 선교사들을 위해 열리는 OMO는 매년 5월, 11월 두 차례 진행되며, 온누리 선교사가 되려면 반드시 참석해야 하는 프로그램이다.

OMO는 온누리교회 선교사로서 하임 되는 과

정을 이해하고, 온누리 선교 리더십과의 만남과 상담을 통해 선교에 대한 헌신을 구체화할 수 있는 시간이다.

또한 온누리 선교정책 및 선교 단체와 선교 훈련 프로그램에 대한 소개 등을 한다.

*문의: 오천병 간사(3215-3679)

/ 오은지 기자



■ 온누리 사랑챔버 걸어온 길(일부)

1999 온누리 장애인음악교실 창단
2002 KBS FM 장애인 음악경연대회(현악4중주)
2006 미국 Stanford 대학 Dinkelspiel 강당
홍콩 Beautiful Concert 연주 Hongkong City hall
2007 아리랑TV 'KOREAN NOW' 출연
2008 'TO KNOW TO LOVE' 덕영재단 초청 연주 예술의전당
2009 미국 볼티모어 'Musicians in Christ' 컨퍼런스
2010 온누리 사랑챔버 초청 연주회 세리파레스홀
청와대 초청 연주, 일본 아사히와라브스나타 출연
2011 체코 프라하 한인교회, 독일 키르쉬하임
'2011 유로코스타', '어린이 코스타'
2012 밀알 음악회-예술의전당 콘서트홀
2013 평창 동계 스페셜 올림픽 문화행사
세계 자폐인의 날 행사 예술의전당 BK 챔버홀
닉부이치치 강연회 연주 성남시청

하나님의 사랑, 꿈, 기적을 품은

사랑챔버의 아름다운 선율 감동으로 꽃피다!

인/터/뷰

“사랑챔버...저의 소명인 것 같아요!”

지난 6일 예술의전당 콘서트홀에서 온누리 사랑챔버의 '희망콘서트'가 열렸다.

작곡가 주영훈의 사회로 진행된 공연은 사랑챔버와 모스틀리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바리톤 고한승, 가수 양과 등의 아름다운 목소리와 연주로 약 두 시간 동안 이어졌다. 사랑, 꿈, 기적을 주제로 진행된 희망콘서트의 지휘는 사랑챔버의 손인경 집사와 모스틀리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박상현 지휘자가 맡았다. 이번 연주회는 사랑챔버의 공연과 '하나님의 꿈을 연주하는 사랑챔버' 책을 보고 감동한 김

부곤 장로와 예술의전당 관계자 등 많은 이들의 후원과 기도로 준비되어 그 의미가 더 컸다.

이재훈 담임목사는 “온누리 사랑챔버의 연주를 들을 때마다 살아있는 감격과 소중함을 새삼 느낀다. 오늘 콘서트는 사랑과 희망을 풍성하게 나누는 자리가 될 것”이라면서 참석자들을 축복했다.

프로그램은 >Jesu, Joy of Man's Desiring BWV 147-온누리 사랑챔버&사랑플러스 >Four Seasons Medley,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 The Entertainer-사랑챔버 >소원-피아

노&노래 박민수 >You Raise Me Up, If you're Happy And You Know it-사랑챔버&맘 플러스 >Air on the G String-모스틀리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Concerto for 2 Violins BWV 1043-바이올린 이지영, 손인경 >My Way, 그대는 모르오-바리톤 고한승 >애송이의 사랑, Marry Me, Greatest Love of All, Somos Novios-가수 양과 >Over the Rainbow-모스틀리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사랑챔버 등의 순으로 이뤄졌으며, 관객들의 뜨거운 성원에 힘입어 앙코르 연주도 선보였다.

/ 조유진 기자 ujin@onnuri.org

처음에는 자투리 시간을 내어 좋은 일을 하자는 의미로 장애인 음악교실을 시작하자 마음먹었습니다. 그런데 돌아가신 하용조 목사님께서 “자폐도 좋습니다. 정신지체도 좋습니다 모두 신창하세요”라며 예배 때 광고를 하시면서 지체장애인만을 예상했던 장애인 음악교실은 지적장애, 다운증후군, 자폐성 발달장애를 가진 장애인 다섯 명으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과서 생각하면 정말 하 목사님의 비전 있는 선포였기에 너무 감사한 마음뿐입니다. 이제 사랑챔버는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사명, 소명처럼 느껴지는 사역이 되었습니다. 이번 예술의전당 공연은 날짜가 5번이나 바뀌기도 하고 여러

움이 많았습니다. 또 사랑챔버가 담당하고 있는 파트가 많아서 혹여 이들이 컨디션을 잃어 연주에 집중을 못하게 될까 늘 가슴을 졸였습니다. 마치 자식을 다 키워서 세상에 내보내는 엄마의 심정입니다. 그러나 열심히 최선을 다해 연습하며 준비해왔습니다. 앞으로 바라는 꿈이 있다면 사랑챔버 단원들이 영적으로 하나 될 수 있는 저희만의 공동체, 훈련공간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많은 기도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 손인경 집사



내적치유 / 간증

“나를 회복시키기 위해 주님께서 준비한 특별한 집회였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 뒤부터 앞으로 아파 오면서 저녁이 되어야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심장이 멈추는 것 같고 온몸에 힘이 빠지면서 세상의 마지막순간이 되는 고통이 가끔씩 찾아오던 것이 한달 전부터 하루에도 몇 번씩 찾아와 정신을 잃다시피 누워야만 했습니다. 주님을 의지하며 참아내며 기도하였습니다. 통증이 심해지자 이렇게 천국가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 급히 귀국하였습니다. 이 병원 저 병원 다니며 MRI와 여러가지 검사를 하였습니다. 의사선생님들은 잘 먹고 푹 쉬면서 정신과 치료를 받으라고 하셨습니다. 40도 이상 되는 더위와 말라리아와 싸우며 302개의 예배당건 축과 고아원, 유치원 등 학교, 군선교 등으로 건강을 돌보지 못했기에 찾아온 질병이라 생각하였습니다. 모든 것 주께 맡기고 기도하면서 주님께서만이 치료하시길 소망했습니다. 늘 베풀고 무조건 나누어주면서 섬겨야만 하는 생활에 영육이 지쳐있을 때, CGNTV를 통해 말씀과 찬양, 여러 집회로 은혜받았기에 온누리교회의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보게 되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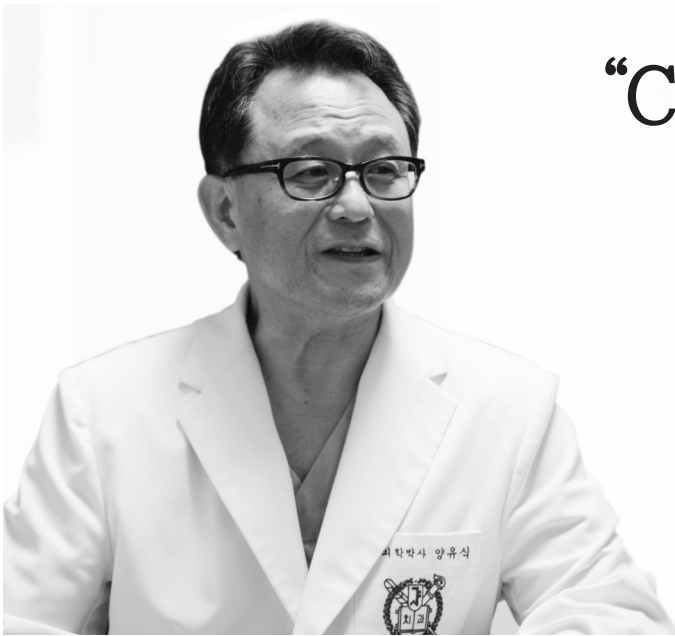
습니다. 날짜에 맞는 내적치유학교 소개가 있었고 무엇보다 정원120명 숫자가 마음에 들어 등록을 하였습니다. 첫째 날 조별로 앉았습니다. 테이블위에 놓인 물병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는 성경구절이 붙어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어쩔 이리도 잘 아실까. 눈물이 흘렀습니다. 옆 사람을 마주보고 칭찬하라고 하셨는데 저와 짝은 아무 말도 못하고 서로 손을 꼭 잡고 눈물만 흘렸습니다. 주위사람들과 교제 중 온누리성도님들이 많은 것을 알게되면서 잘못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돌아가려니 길도 모르고 차타는 방법도 모르니 어쩔 수 없이 끝까지 있어야 했습니다. 내적치유와 상처, 두려움, 수치심 등 여러 강의를 듣고 나를 조금씩 알아가기 시작하면서 답답해지며 한숨이 자주 나왔습니다. 용서강의를 마치고 용서의 편지를 쓰라고하는데 생각나는 사람들

의 이름을 쓰다가 모든 일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7년 전 아들이 탄 비행기가 추락했을 때 하나님은 무엇을 하셨나요? 그러나 조금씩 나누는 동안 무언가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십자가와 예식을 통하여 지난 7년 울지도, 말하지도 못하고 가슴속에 묻어두었던 아픔들을 토해내게 되었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능력의 하나님이시라고 하셨지요. 그런데 왜 태중에서부터 찾아들 주님께 드리겠다고 서원하고 기도하며 키웠잖아요.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의 종이 되어 열방의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선한 일꾼이 되려고 했던 그 아들을 왜 그렇게 하셨나요? 왜 이런 일을 겪게 하셨나요. 그때 주님은 어디 계셨는지 묻기도 하고, 원망도하다가 회개를 하며 평평 울며 기도를 하면서 병든 나의 몸이 치유되는 것을 알았습니다.

내적치유학교를 등록하기 전 적은수의 모임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좋은 하나님께서 나를 치유, 회복시키시기 위해 특별히 만드신 집회였습니다. 나를 만드신 하나님을 깊게 만나는 시간들이었습니다. 내적치유학교를 위해 사랑과 헌신으로 섬겨주신 한 분 한 분께 감사를 드리며 온누리교회에 감사드립니다. 선포하며 주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며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 더 멋지고 힘 있는 그리고 두려워하지 않고 강하고 담대하게 아름다운 삶을 펼쳐주실 것을 기대하며 그렇게 되리라 믿습니다. 고아와 같이 버려지지 않으시겠다는 주님의 말씀 의지하며,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며 이전보다 새로워진 삶이 되도록 노력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 서혜경 선교사



“CGNTV는 하나님의 꿈나무입니다”

더 많은 교회와 성도가 후원 대열 합류하기를

CGNTV가 만난 사람 / 당회 서기 양유식 장로

“콘텐츠 면에서 CGNTV가 타 기독교방송보다 비교 우위에 있는데도 한국 교계와 크리스천들에게 아직 덜 노출돼있는 것 같아 아쉬워요. 현재 IPTV나 인터넷을 통해 국내 어디에서나 시청할 수 있지만 더 많은 지역 케이블TV에 진출하면 좋겠습니다. 방송인지도가 더 올라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회 서기인 양유식(서울 스타일치과 원장) 장로는 바쁜 일과 속에서도 CGNTV를 통해 영적 재충전을 받으려 애쓰고 있다며 CGN에 대한 무한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과거 프로그램 가운데 이무석 교수가 진행한 ‘나를 사랑하게 하는 자존감’ 세미나를 재미있게 봤다는 양 장로는 요즘 ‘유재건의 크리스천 CEO를 만나다’ 등 알찬 프로그램에 흠뻑 빠져 더 많은 애정이 생겼다고 부연 설명했다. 또 “지난달 교회 창립주일 CGNTV 후원 약정행사를 통해 후원자 2만1000명 시대를 맞이한 것을 축하한다”면서 “온누리교회 교인이자라면 어린이들까지 모두 CGN 평결(후원)선교사가 돼야 한다. 뿐만 아니라 더 많은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후원대열에 합류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양 장로는 초창기 온누리교회의 24인 멤버이다. 교회가 정식 창립예배를 드리기 전에 1984년 10월 한남동 햇빛회관(한국기독교선교관)에서 시작된 12가정, 성경공부 17기에 이어 27기로 합류했다. “초기 하용조 목사님 설교는 평균 1시간 정도였어요. 오전 예배를 드린 뒤 그룹별 모임을 갖고 전 성도가 함께 점심식사와 교제를 나눴죠. 오후에도 성경공부가 이어지고... 매주 수요일 성경공부 모임도 따로 있었어요. 그야말로

온 성도들이 유무상통하는 유기적공동체, 사도행전적 교회였죠” 양 장로는 “당시 하 목사님이 ‘이제까지의 직분이 무엇이었던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생활을 하자’고 제안해 장로, 권사, 집사라는 호칭 대신 모두 형제, 자매로 불렀다”고 회상했다. 초창기부터 하 목사와 함께 ‘또 하나의 교회’가 아니라 사도행전의 ‘바로 그 교회’에 대한 꿈을 꾸었다는 설명이다.

양 장로는 “교회의 성장에 따라 정형화, 조직화되는 건 어쩔 수 없지만 목회자와 교인, 목회자와 목회자, 교인과 교인 간격을 보다 좁혀나가는 소통과 공감, 실천의 장을 조성하는데 온누리 리더십이 책임감을 강하게 느끼고 있다”며 “지난 달 전교인 의식조사를 한 이유도 그것의 일환”이라고 밝혔다. 이어 “개 교회 차원에서 최초로 이뤄진 의식조사 결과는 표본 자체가 많기 때문에 연말 정도면 나올 것 같다”면서 “시대와 세대의 요구를 최대한 존중하되 복음의 원초성과 온누리교회의 사역가치에 보다 충실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양 장로는 “2015년 교회 창립 30주년에 앞서 하 목사의 영적 유산을 계승, 발전시키고 제2기 이재훈 목사님의 창조적 사역에 맞도록 보다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교회 비전과 실천 방식을 수립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당회 내 인사위원회, 대외협력위원회, 선교위원회, 미래성장위원회, 대외협력위원회 등 다양한 소위원회의 활동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전했다.

양 장로는 온누리교회 밖에서는 의료선교전문가로 불린다. 특정 선교지에서 오랫동안 활동한 경력은 없지만 치과의료선교회, 한국기독교의



료선교회 등을 통해 동역자들과 함께 선교인프라를 만들어왔기 때문이다. 1961년 미국 남장로 선교부의 파송을 받아 20여 년간 한국에서 치과의로 선교사역을 감당한 유수만(Dr. Dick H. Nieusma Jr.) 선교사의 정신을 이어받아 1982년 3월에 설립된 치과의료선교회 회장으로 10년 넘게 봉사하기도 했다. 2012년부터는 77개 의료선교단체가 가입돼있는 한국기독교의료선교협회 회장으로 섬기고 있다.

“서울대학교 치대를 졸업한 뒤 광주기독병원에서 인턴생활을 하면서 유수만 선교사를 만났습니다. 1970년대 한국 치과계는 일본식 교육 영향을 받은 터라 대학병원조차 서양식 의술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미국 명문의 미시간대학교 치과대 출신의 유수만 선교사는 저에게 선진 의술을 전수해준 은사일 뿐 아니라 의료선교에 눈을 뜨게 해준 분입니다.”

당시만 해도 그는 기독교인이 아니었다. 유수만 선교사는 수련받기 위해 내려온 제자를 교회로 인도했다. 찬송가도 잘 모르는 그를 성가대에서 봉사하게 했다. 소년원생들에게 성경도 가르치도록 했다. 이 때문에 적잖은 심적 부담감을 느꼈었지만 병원에서, 일상에서 하나님 말씀을 묵으로 구현해내는 스승의 전인적인 삶을 목격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점차 알아가게 됐다.

1986년 스승이 미국으로 떠나자 치과의료선교회를 책임지는 자리까지 감당하게 됐다. 치과의료선교회는 설립 초기 10년간 난지도 저소득 주민 이동진료 등 국내활동에 주력했다. 양 장로가 회장으로 취임한 뒤 해외 현지인 장학금을 전액 지원하거나 선교회원들과 함께 음력설, 추석 연휴 단기의료팀을 보내 진료사역에 나서는 등 국외로 눈을 돌려 ‘전문인 해외선교’에 앞장섰다. 치과의료선교회는 현재 10가정의 선교사를 동북아시아, 중앙아시아 및 동남아시아 등 미전도 지역에 파송했다. 6가정의 선교사역자와 협력과 후원을 하고 있다. 그렇다고 국내 의료선교를 포기한 것은 아니다. 1994년 6월에 치과의료선교센터를 개원했으며 부설 ‘사랑의 치과의원’을 운영하고 있다. 국내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 근로자와 탈북자들을 위한 진료도 도외시 하지 않았다.

양 장로는 인터뷰 말미에 “CGNTV가 세계 크리스천들에게 하나님의 꿈나무라고 믿는다”면서 “온누리교회가 물을 쥐 뿌리를 공고하게 내리게 하도록 부름을 받았다면 한국 크리스천과 전 세계에 퍼져있는 한인 기독교다스포라가 썩어 나고 열매가 맺히도록 동역자로 합류해야 한다”고 힘주어 강조했다.

/ 함태경 CGNTV 경영기획본부장



CGNTV 모니터단 발족

6개월 동안 모니터링 보고서 작성

제1기 CGNTV 시청자 모니터단이 지난 6일 발족식을 가지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CGNTV 본사에서 진행된 발족식에는 모니터단 7명이 참석해 CGNTV의 비전과 모니터링에 대한 강의를 듣고 임명장을 수여받았다.

애청자들로 구성된 만큼 모니터단의 CGNTV 사랑이 남다르다. 일본에서 CGNTV를 통해 믿음생활을 하면서 선교사들의 마음을 알게 되었

다는 임연빈 집사는 CGNTV를 전도도구로 사용하고 있다. 유상화 권사는 매일 CGNTV를 통해 큐티한 내용을 블로그에서 공유하고, 200명이 넘는 지인들에게 전송하고 있다. 제주도에서 외롭게 신앙생활 하면서 CGNTV를 통해 큰 힘을 얻었다는 이정희 집사는 받은 은혜를 모니터단 활동을 하면서 주변에 나누고 싶다는 각오를 밝혔다. 모니터단은 매월 자체 모임을 갖고 매주 두차례 모니터링 보고서를 작성하게 된다. 활동 기간은 6개월이다.

